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중세시대도 아닌 오늘날, 누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의심하거나 부정할 것인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당연시되는 주장도 따져 보면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을까, 차를 마실지를 결정하는 일상의 일도 굳이 말하자면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자유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 이러한 선택에 따른 일련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과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속에서만 자유의지의 의미는 실천적으로 드러나며 완성된다. 이런 고민에 대

자유의지, 모든 것의 허용을 의미하는가?

해서 집요하게 파고든 작가가 바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이다. 자유의지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최고의 작품이 그의 유작이자 미완성으로 남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살해라는, 끔찍한 상황을 둘러싼 아들들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어찌저찌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다른 전당포 노파의 살인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살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것일까? 작가는 살인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한술 더 떠 친아버지의 살해라는 극단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곧 모든 것을 허용하는가?’를 묻는다. 이 문제는 둘째 아들인 이반을 통해서 대변되는데 큰아들 드미트리처럼 이반 역시 자신들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도 보여 주지 않은 아버지를 증오한다. 이반은 신을 믿지 않으며, 설명 신이 있다고 한들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이반은 ‘대심문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한다. 이반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모순을 조목조목 말한다. 특히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아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근거로 신의 부정과 불신을 말하며, 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역설한다. 신과 종교가 이미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반의 말처럼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나자 대심문관은 당황해서 “왜 나타났는가? 세상을 방해하러 왔는가?”라고 물으며, 어서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한다. 대심문관을 통해서 신을 추방함으로써 이반은 인간에게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주장한다. 누구나 자유로우며,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계속해서 이렇게 묻는다. 계몽과 이성으로 찾아낸 자유의지가 악마적 유혹과 마주했을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가?

자유의지가 교만과 결탁해서 삶을 관념과 논리로 왜곡할 때 그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논리와 관념의 뒷에 걸린 삶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반은 얼굴을 모르는 막연한 인류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가까운 이웃은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와 주장에 도취된 이반의 모습을 주변에서도 흔히 본다. 격렬한 대립과 증오의 궤변이 난무하고, 어찌까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에게 격한 모멸과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향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두가 힘들게 견디고 있는 상황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이반은 미래를 감당하지 못한다. 대신 작가는 막내아들 알로샤를 통해서 허무주의적 관념과 무책임하고 과잉된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삶에 대한 견해와 믿음을 보여 준다. 바로 이런 알로샤가 희망을 향한 진정한 의지와 힘을 가진 것이다. 자유의지는 개인의 실현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한계 없는 자유의지는 곧 오만이며 절망이고, 그래서 악이다.

기고

진정한 명예 회복은 독립유공자 예우로



고석규
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전 목포대 총장

올해로 126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침략 투쟁의 선구로서 근현대 민족·민주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이 나라 근대사의 길을 여는 이 혁명의 길에 우리 호남인이 앞장섰고,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항일 투쟁으로 이어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 지난 2004년 3월 5일 공포되었다. 실로 110년만에 우리의 뒤틀린 역사 하나가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또 오랜 논란 끝에 2019년 2월 1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125년만에 처음으로 국

가 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이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동학 민족들의 영원과 분노는 25년 동안 응축됐다”며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폭발했다. 그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9명은 동학농민군 출신이었다”라고 하여 3·1운동의 동력이 동학농민혁명에서 나왔음을 인정하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해에 나온 이런 기념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부리였음을 공식화한 셈이었다. 오늘로 그 두 번째 기념일을 맞는다. ‘동학난’이라 불리며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불과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명예 회복이 마무리되면 마땅히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적용 대상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

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 되어있다. 국권 침탈을 반대하여 일제에 항거한 점에서 본다면,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는 분명히 거기에 해당한다. 2차 봉기 때인 11월 12일, 전봉준이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 이름으로 낸 ‘경군과 영병에게 고시하고 인민에게 교시함’이란 글을 보면, “우리 동도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당을 제압하여 조정을 태평하게 하고 사직을 보전하고자 한다. … 방금 대군(일본군)이 서울로 들이닥쳐 사방이 흥흥한데 편벽되게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이는 골육상잔이라 할 만하다. … 같이 척왜척화(斥倭和化)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합하여 큰일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관군과 군교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일본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자고 호소하였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민족의 힘을 모아 항거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전남의 농민군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2차 봉기의 대열에 당당히 나섰고, 2개월에 걸친 네 차례의 나주성 공방전, 그리

고 장흥 석대들 전투 등에서 전략적 역할을 다했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무수히 많은 농민들이 무참히 죽음을 맞이하는 역울하기 그지없는 참사도 겪었다. ‘특별법’에서도 2차 봉기는 항일 무장 투쟁임을 명시하였고, 이미 모든 감·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2차 봉기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반침략 항쟁이었음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2차 봉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법’에서 대상자의 자격으로 제시한 ‘국권 침탈을 반대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5년 항일 의병은 그 대상이 되지만, 한 해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안 되고 있다. 두 사건이 그렇게 다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에 하나 양반 유생은 되지만, 농민은 안 된다는 신분 차별 때문이라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 포함시켜 국가보훈처에서 합당하게 예우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에게 보답하는 ‘진정한 명예 회복’의 길인 것이다.

社說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이번엔 실패했지만

전남도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나주로 유치하는 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수도권 집금성 등 불합리한 평가 항목에 끝내 발목이 잡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엇그제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로 충북 청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나주는 총점 100점 중 87.33점을 획득해 90.54점을 얻은 청주에 밀렸는데 두 후보자의 점수 차이는 단 3.21점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컸다. 과기정통부는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청주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 집금성과 자립 활용 가능성 등 불공정한 공모 기준이 나주 유치에 결정적 장애물이 됐음을 말해 준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안전성을 고려한 분산 배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포항과 경주, 부산, 대전 등 영남권과 충청권

에 모두 다섯 개의 가속기가 운영 또는 구축 중이며, 호남권에는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청주에 또 다른 가속기를 구축하는 것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정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 항목과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입지 선정의 전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인데, 정부의 공모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호남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 공모에서는 반드시 입지 선정 기준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최적으로 꼽히는 나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태원발 코로나 ‘제2신천지 사태’ 우려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면서 불안의 그림자가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 사이 황금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머무른 이태원 클럽들을 다년간 인원은 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어제 정오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행히 광주·전남에선 확진자가 없었지만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지역민이 계속 늘고 있어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초기 전파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16명(질병관리본부 통보 2명, 자진신고 14명)의 신원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

는데 다행히 1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또한 이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이태원동 소재 킹, 쿨, 트렁크, 디파운틴, 소호, 힘 등 여섯 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한 이는 조속히 관찰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찌 됐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일부 젊은 층의 무모한 행동이 혼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K-방역’ 공든 탑을 노획기에 계속 늘고 있어 방역당국의 허탈감이 든다. 이태원 집단 감염은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누차 강조해 왔지만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 나가야겠다.

無等鼓

사람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사랑에 흥미를 잃으면, 우리는 다른 물건들처럼 사랑을 서랍 속에 넣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서랍 속에는 사랑의 그림자가 드러워져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신화 가운데 사랑의 배신과 징벌을 다룬 ‘메데아 이야기’가 있다. 콜키스왕의 딸 메데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제이슨이라는남자를 사랑한다. 메데아의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제이슨은 얼마 후 코린토 왕의 딸 크레우사와 불륜에 빠진다. 메데아는 축하의 선물로 크레우사에게 가운을 보내는데, 입기만 하면 불이 붙어 죽게 되는 마법의 옷이다. 결국 크레우사는 불에 타 죽고, 메데아는 제이슨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까지 살해한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장안의 화제다. 지난 12회 시청률이 24.3%를 기록,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1위였던 ‘SKY 캐슬’ 최고 기록인 23.8%를 갱신했다. 특히 그리스신화 메데아 이야기에

서 영감을 얻어 제작했다는 영국 드라마를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해 이목을 끌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緣)이 배신으로 틀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다. 얽히고설킨 관계와 내밀한 심리묘사, 섬세한 눈빛 연기가 돋보이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가 보여 주듯이 부부만큼 신비로운 관계도 없다. 대부분 사랑도 시작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탓에 우역곡절을 겪기 마련이다. 주창운 서울여대 교수는 그의 저서 ‘사랑의 인문학’에서 ‘사랑은 끊임 없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사랑은 ‘나에 대한 발견으로 시작해서 타자에 대한 발견, 그리고 둘 사이를 매우는 불완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에제르 케네게드’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로서 서로 ‘뜸은 배필(配匹)’을 의미한다. 가정의 기초이자 사회의 근원인 부부는 오직의 관계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사랑마저 인스턴트화되는 시대, 참사랑은 무엇일까? 가정의 달 5월에 부부의 세계를 생각해 본다. /박성진 문화부부장skypark@

부부의 세계

기고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거는 상생의 기대



박성수
미래남도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

최근 귀가 솔깃한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다름 아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겠다는 소식이다.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니 만사지탄의 같은 있지만, 기쁨에 대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해 꼭 풀고 가야 할 난제 중의 난제인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이듬해 10월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었고, 마침내 2016년 8월 적정 승인을 받았다. 그 후 광주시는

2017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남의 6곳을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 국방부에 선정 요청을 했다. 그러다가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취임한 시도 수장들은 2018년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첫 모임에서 군공항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국토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완공된 이후 광주군공항과의 통합 논의는 201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국내선은 광주공항, 국제선은 무안공항으로 현재까지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기에 그동안 미루어 왔던 이 숙제를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입장 표명은 시도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당시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던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2021년이 민간공항의 이전 적기라는 연구 결과를 밝힘으로써 이전 시점의 논거를 뒷받침한 바 있다. 여기서 그 당시 화기에예했던 시도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장면을 회상해 보자. 새로 바뀐 시장과 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포용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2018년 10월 국방부가 마련한 후보지 사전 설명 과정에서 무안 지역이 완강하게 반대하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공항 이전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기초지자체장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전 사업 실행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초반에 해당 후보지로부터 발목을 잡히게 되고 만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는 뒷집만 진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갈수록 갈등이 깊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현행 특별법을 가지고 이전 대상 자치단체를 납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현재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수익금만도 내에서 신공항 건설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손보아서라도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엔 구성되는 군공항 이전 시도 공동 TF는 무엇보다도 이전 후보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파격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제에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산업단지, 문화관광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가져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TF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정신을 살리고 수원이나 대구의 군공항 사례를 교훈 삼아 기필코 성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민주당 일색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더없이 시급하고 막중한 과제인 만큼 ‘슈퍼 여당’ 의원답게 활약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